

합격기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그것을 깨닫기까지...



박 광 흠

- 1983년 4월 생
- 경주 문화고등학교 졸업
- 한동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고시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원고 청탁을 받고서는 제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고사하려고 하였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나마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족한 글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I. 처음 고시를 시작하기까지

저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특이한 것이, 처음 입학할 때에 전공 없이 입학한 다음 2학년에 올라갈 때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컴퓨터를 좋아해서 전산전자 계통의 전공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들었던 법학입문 수업에서 처음 접하게 된 법의 세계가 그렇게 매력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생각했던 진로를 변경해서 법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벌써 오래 전이라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공부 가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지만 하나하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권리와 의무, 제도와 절차, 공익과 사익 등등 여러 개념들을 알게 되면서 무언가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들을 배워 나간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지식이 쌓여 가는 것을 느끼며 즐거

운 대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시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왕 법대를 왔으니 사법고시를 한번 준비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외에 딱히 거창한 꿈이랄까 야망이랄까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생 학교라 제가 고시를 시작하였을 때까지도 아직 합격한 선배는 전혀 없었지만, 항상 두꺼운 수험서를 들고 다니면서 고시를 준비하는 선배들을 보며 저도 어렵פות이 고시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져서 결국 2005년 1월 1일,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신림동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II. 처음 1차시험을 치기까지

신림동에서 보낸 처음의 1년은 참으로 길었지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긴 했지만 주말마다 집에 갔기 때문에 부모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것은 처음이었고, 신림동을 가득 채운 수많은 고시생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다들 자기의 길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이라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먼저 올라와 있던 선배들의 조언과 여기저기에서 본 공부 방법론 등에 의지해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고시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강의가 시작하는 3월 전에 영어공부를 해서 토익점수를 받고 마음

편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고시공부를 하러 올라와서 영어 공부를 하려니 좀이 쑤셔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3월이 되어 민법부터 기본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김형배 교수님 교과서를 가지고 권순환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학부 시절에 배웠던 법학이론보다 더욱 방대하고 심도 있는 법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방대해진(방대해졌다기보다는 법학의 세계가 그렇게나 방대하다는 사실을 그때에야 알게 된 거죠) 공부의 절대량에 주눅이 들기도 했고, 아무리 봐도 며칠 후엔 잊어버리는 저 자신의 기억력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고시생의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배 선생님의 형법강의와 차강진 선생님의 헌법강의까지 무사히 들으며 여름을 맞이했고, 여름에 국제법과 가족법을 들은 후에 9월부터는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모강이 12월 초에 끝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는 마무리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정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본서와 판례집을 수회 정독하면서 기존에 배웠던 지식이 재구성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된다는 말의 의미를 그때 어렵듯하게나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방대한 양의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초시계를 옆에 두고 1분이 지나면 다 읽든 읽지 않았든 무조건 한 페이지를 넘기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회

독수를 늘려가니 어느 정도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III. 말도 안 되는 실수

처음 1차를 쳤던 곳은 방배동의 서울고등학교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1년 동안 이만큼이나 준비를 했으니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험 운이 좋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아마 별 무리 없이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거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1교시는 헌법과 국제법이었습니다.

원래 글을 빨리 읽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시험을 쳤더니 시간이 무려 40분 이상 남았습니다. '별 것 아니네'라고 생각하며 여유 있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도 20분 이상 시간이 남았기에 답안지에 마킹을 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1교시가 마치는 종이 울렸고 저는 자신 있게 답안지를 뒤집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요. 국제법 답안란에 마킹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을 먼저 마킹하고 헌법을 마킹하다가 실수해서 답안지를 교체한 다음, 헌법 마킹을 끝내고 국제법 마킹을 하지 않은 채로 답안지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자리는 맨 앞줄이라 상황을 파악했을 때 저의 답안지는 이미 감독관의 손에 있었습니다. 시험본부까지 가서 애원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버린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 더 이상 시험장에 앉아 있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아 짐을 싸서 나와 서울고등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시험을 응원하시려고 지방에서 올라오고 계시던 중에 전화를 받으시고 처음엔 이게 꿈인가 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다가 그날 어머니를 만나서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림동에 더 있어 봐야 공부도 안 될 것이고 학교를 다니면서 바쁘게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IV. 두 번째 1차시험, 그리고 초시

그렇게 학교로 다시 돌아와 한 학기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고 다시 한 번 도전해 볼 용기가 생겼기에, 4학년 1학기가 끝난 후 다시 휴학을 하고 7월에 신림동으로 올라 왔습니다. 한 학기 내내 '내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결국 도달한 생각은 '아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너무 건방졌구나.'하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험장에서도 그런 자세로 시험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온 신림동에서 7,8월은 판례강의를 들으며 기본서를 간략히 1회독씩 하고 9월부터는 다시 모강을 들었습니다. 모강을 듣는 동안 복습이 여의치 않았기에 몇 명이 모여서 스터디룸을 잡고 세 시간 정도 그날 본 모강을 복습하고 OX문제집을 풀고 집에

같이 가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착실하게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강도 그렇고 사시 공부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양에 질식하기가 일쑤인데,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놀리지 않고 그 많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1차를 준비하는 내내 수험표를 가지고 가지 않거나 답안지를 밀려 쓰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너무나 뼈아픈 실수였기에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독서실 책상에 시험장에 갖고 가야 할 것들, 시험장에서 잊지 말고 해야 할 것들을 붙여 두고 날마다 보며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마침내 두 번째 1차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가 8지선다형 지문이 처음 출제되었던 때라 여러 가지로 수험생들에게 혼선이 많았던 해였는데, 저는 어차피 누구에게나 조건은 똑같으니 흔들리지 말자고 생각하며 시험을 치렀고, 여유 있는 점수로 1차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1차를 준비할 때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2차생이 막상 되고 나자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고, 2차를 준비한 경험이 있는 선배들도 거의 없었기에(저보다 한 해 먼저 합격한 선배가 몇 명 있긴 했지만 다들 제시 준비생이라 귀찮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맨땅에 헤딩을 해야 했습니다. 학원 예비순환 강의를 들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웬지 학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1차 시험의 여과를 회복한 후에 공부를 시작하자는 생각에 3월 말부터 민소법 작년 1순환 강의를 구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처음 접하는 후사법은 도무지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원래 진득하니 공부를 하는 성격이 아닌 탓에 민소법 외에는 강의를 듣지도 않고 혼자 기본서와 사례집을 들고 쾅쾅거리다가 결국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V. 제시, 그리고 삼시

초시를 처참하게 치르고 난 후 아무래도 학원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후사법은 1순환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도 그 시기에 마음이 잡히지 않던지, 학원에 출석은 했지만 학원 수업이 끝나면 독서실에 잘 가지 않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거창하게 논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피씨방이나 만화방에 왔다 갔다 하거나 집에서 잠을 자거나 대충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초시 결과가 나왔고, 후사법 중에 두 과목 과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에 별로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결과를 보면서라도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2순환부터는 또 다시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기본서와 사례집을 보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초시 때 혼자 보는 것보다는 나왔지만 쓸데없는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량을 줄일 수 있을

까 하는 것만 생각하고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어떻게 그리도 건방질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해도 끝없는 것이 이 공부인데, 남들이 다 아는 뻔한 논점 몇 개를 본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으스스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3순환 기간이 되자 그제야 제 실력이 형편없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고, 저는 또다시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초시 때보다는 나아지만, 여전히 답안지에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적었고 온갖 말을 만들어내서 답지를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답지를 채워서 내고 나니 마치 제가 정확하게 답을 다 쓴 것처럼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당연히 합격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으니 당연한 수순으로 마지막 학기 복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합격 소식을 들으리라 기대하면서 졸업을 하고 바로 연수원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했던 것은 총점 미달에 더하여 형법 과락으로 인한 불합격 통보였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터라 괜히 바닷가에 가서 백사장에서 쓸쓸히 거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졸업은 다가오고 있었고, 취직이나 아니면 계속 고시를 할 것이냐의 기로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 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후회도 잠깐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의 불합격 이후에야 길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고 여기에서 그만둔다면 최선을 다해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한 기억에 평생을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보자 생각하며 학교 수업과 1차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마지막 학기임에도 미뤄 두었던 학점이 많았지만 고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쌓았던 자산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병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에 토익 성적을 넘기고, 12월에 기말고사를 치자마자 다시 신입등에 복귀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던 터라 모강을 풀 여유는 없었고, 고시계사에서 나온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집과 권순한 선생님의 민법 핵심지문총정리, 이용배 선생님의 단권화 형법강의, 신체계 판례형법, 차강진 선생님의 10년기출지문OX와 판례집을 계속 읽고 풀었습니다. 6-4-3-1로 돌리면서 간간이 국제법과 가족법을 보며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지만 다행히 두 문제 정도 차이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채점 점수가 그렇게 안정권이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3순환이나 동차반 강의를 듣자니 마음이 잡히질 않았고, 결국 전에 하던 대로 혼자 독서실에 다니면서 기본서와 사례집을 읽는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아

직 저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탓입니다. 3시쯤 되니 이제 후사법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책이 눈에 잘 들어온다는 느낌에 잊고 있던 교만함이 다시 눈을 떴고, '이거 뭐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겠거면.' 이라고 생각하며 그 정신없어야 할 3순환의 황금 같은 시간들을 저는 또 최소한의 노력으로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VI. 세 번째 실패, 그리고 마지막 도전

나름 여유를 가지고 공부했기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섰던 저는 예상보다 꽤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파악해서 그에 맞는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글을 길게 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또 불합격이었습니다. 형법이 또 과락이 나왔고, 총점은 제시 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때 같이 공부하던 형이 답안지를 확인하러 가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여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답안지를 확인하면서 저는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법의 답안지가 절반 가까이 백지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 당연히 제가 답안지를 꼭 채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분량을 다 채우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제가 굉장히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란 것을 알았으며, 공부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

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순환을 시작하며 확원 모의고사반에 등록해서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치기로 했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힘이 들 것 같아서 같은 교회의 형과 함께 독서실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시험을 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을 먹는 생활 스타디를 2순환부터 시험을 칠 때까지 했습니다. 이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 공부했던 때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험을 치르면서 몰랐던 논점들, 판례들을 노트에 옮겨 적고 기본서와 사례집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공부했고, 하루하루 쌓여 가는 시험지를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반반의 준비를 한 후에 마지막 치렀던 2차 시험에서 민법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며 저는 합격을 확인했고, 어머니와 함께 합격 소식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VII. 글을 마치며

수험기간이 오래되었던 탓에 구구절절 이야기가 많아 읽기에 지루하지는 않으셨을지 걱정이 듭니다. 공부 방법론도 방법론이지만, 저는 제가 지내온 고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게 헛된 자기 확신과 교만이 가득 차 있었던 때에는 옳은 길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하는 것이 다 옳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실상을 알고 나자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어두움들이 걷혀졌고, 정직

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왕도요 그것만이 합격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실지 몰라 제가 2차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교재를 말씀드리자면, 민소법은 이시윤 교수 저와 박승수 워크북, 상법은 김혁봉 상법신강과 황의영 사례집, 행정법은 박균성 교수 저와 박정훈 교수 사례집, 형소법은 이재상 교수 저와 이재상 교수 사례집을 보았고, 민법은 교안, 형법은 송헌철 저, 헌법은 정희철 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어떠한 교재를 보더라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면을 통해 항상 저

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저의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며 함께 합격의 영광을 나눌 수 있었던 원일이형, 정말 고맙습니다. 형이 아니었으면 과연 합격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총교회와 옥산교회 식구들, 기도와 사랑으로 아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저를 생각하고 늘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